**신한은행 뉴스 정리**

1.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스마트뱅크 @GS25’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  
   양사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디지털 신사업 공동 추진, 채널 제휴를 통한 고객혜택 강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함.  
   신한은행은 GS리테일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남은 거스름돈이나 소액을 저축할 수 있는 모바일 저금통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  
   GS25 냉장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시 부여받은 QR코드를 활용해 편의점에서 나믄 거스름돈이나 소액을 저축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음. 적립된 금액은 신한은행 적금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한, 바이오인증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노틸러스효성의 스마트 ATM 보급을 확대하고, 휴대폰 QR코드만으로 GS25에서 결제가 가능한 계좌기반 결제 서비스도 개발하는 등 양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신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
2. ‘가상화폐 금고서비스 테스트 구축’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 타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은행이 가진강력한 보안성과 가상화폐 장점을 결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비트코인을 구매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키 값을 그 증거로 보관하게 된다. 이때 보관은 주로 온라인 지갑 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키 값이 유출될 경우 비트코인 사용자는 원금을 손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중아 신뢰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가상화폐 특성상 비트코인 소유에 대한 증거를 이중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이용 시 참여자의 개인키는 정당한 참여자로서 활동을 승인 및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개인키를 공격자에게 도난당할 경우 정상 참여자로 위장한 공격자의 다양한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우선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서비스 테스트 서버 구축을 추진한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개발과 통계/분석용 관리자 페이지 개발 등에 나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키를 은행이 제공하는 가상 금고를 통해 보관해주는 서비스. 보관할 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출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일본 금융권의 블록체인 스터디 그룹은 보안수준 충족 및 신뢰 가능하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코어노드’를 통해 키 관리, 참여자 검증 및 승은, 개인정보 접근통제, 블록체인 sw 관리 등 역할 수행을 타진하고 있는 등 가상화폐 보관 및 입출금에 금융사의 참여가 본격화 되고 있다.
3. 국내기업의 베트남 해외사업 진원을 위해 실시간 환율 적용이 가능한 ‘신한글로벌 현지통화 송금-베트남 동(VND)’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힘.  
   ‘신한글로벌 현지통화 송금-베트남 동(VND)’ 서비스는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금액을 미리 현지통화로 확정한 뒤 한국에서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미화 20만달러 상당액 이상 송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송금은 한국에서 달러화를 기반으로 베트남에 송금한 뒤 베트남 수취은행에서 다시 현지통화로 환전을 하게 돼 베트남 수취은행의 환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베트남 동화 금액이 달라졌다. 따라서, 그동안 베트남 투자를 위한 자본금 또는 대여금 송금에서 정확한 동화 수취금액을 알 수 없어 생겼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은행은 예상했다.
4. 핀테크 기업 케이앤컴퍼니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형 공동주택 시세 산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형 공동주택 시세 산정 시스템’은 서울, 경기 지역의 소형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의 시세 현황을 웹을 통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는 케이앤컴퍼니와 함께 매월 2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서울·경기 지역 144만 세대 대상 공공데이터(건축물대장, 실거래 정보, 개별공시지가 등)의 수집·검증을 통해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유사한 거래 사례와 건물 정보9대지 면적, 전용 면적, 대지권 면적, 위치 등) 분석 데이터들을 추가해 시세 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기존 감정가격, 경매가격과 산출된 시세를 비교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세를 보정하고 있다.  
   ‘소형 공종주택 시세 산정 시스템’은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 현항과 건물 상세 정보까지 한누에 보여주며 동일 지역 주택의 시세 변동 현황과 거래 추이, 인구변동 추이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소형 공동주택 시세 산정 시스템’은 관련 부동산 플랫폼이 부족해 매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연립·다세대주택 부동산 시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와 서민 금융지원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디지털의 발전으로 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Now)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함으로써 새로움(New)과 그다음(Next)을 향해 나아가자는 다짐을 광고에 담음. 이를 통해 단순한 손익이나 규모의 1등 은행이 아니라 한국 금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초(超)격차의 리딩뱅크’로서 고객에게 남다른 가치와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
6. 신한은행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경매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과 가치평가, 매물 소개는 물론 경락자금 대출까지 한 번에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경매물건에 대한 분석과 평가부터 관련 대출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주 서비스 계획.  
   은행의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추진하는 모바일 경매 플랫폼 구축 작업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주요 경매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7. 신한은행이 글로벌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CSR 가이드북은 신한은행이 보유한 전 세계 20개국 150개 글로벌 네트워크에 배포됐다. 신한은행은 각국 현지 수요를 반영한 지속가능 사회공헌사업을 발굴 및 지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의 현지화’ 정착을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글로벌 CSR 가이드 북’에는 사회공헌의 역사와 자원봉사의 이해를 시작으로 국가별 CSR 정책과 문화적 특수성, 사회공헌 우수 사례 등이 수록되어있어 해외 영업점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지역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신한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고객을 위한 모바일 뱅킹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가입 또는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은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 적금’과 ‘신한 가맹점 사업자대출’이다.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적금은 매월 1천만원 이하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1년제 적금이다.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상품이다.
9. ‘Anytime, Anywhere 상담서비스 제공’이라는 고객맞춤 전략을 펼치고 있는 신한은행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상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고객 접촉로그 통합 구축, 스마트컨텍본부 통합상담 플랫폼 구축, 스마트고객센터 실시간 STT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을 동시에 발주해 디지털 고객 상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전화상담 품질요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객 응대율을 9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뱅킹 시대에 맞게 ‘모바일 톡 상담’, ‘화상 상담’, ‘비대면 실명확인’ 등 디지털상담채널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콜센터 상담내용을 분석하는 ‘녹취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민원이나 이슈 사항을 은행의 상품, 제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디지털 고객센터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인프라 기반을 통합하고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 대응하는 통합 상담 플랫폼을 도입한다.
10. 신한은행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짠테크’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신한 스마트 MORE 적금’을 출시했다.  
    ‘신한 스마트MORE 적금’은 매월 4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1년 만기 상품으로 모바일 저금통 ‘한달愛 저금통’과 간편 이체 서비스 ‘스마트 이체’와 연계해 고객들이 짠테크 방식의 재테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짠테크란 김생민의 짠테크가 알려지며 짠돌이 재테크를 말한다. 또한 최근에는 욜로 열풍과 짠테크 열풍이 만나 욜테크라는 말도 생겼다. 욜테크란 삶을 즐기면서도 소비는 합리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무조건 저렴하고 싼 것만 찾기보다는 할인 쿠폰과 포인트 등을 모아 합리적 가격으로 프리미업급 숙소와 비즈니스 항공권 등을 구매하는 것이 전형적인 욜테크이다.
11. 신한은행이 ‘원뷰·원 보이스(One View, One Voice)’ 프로젝트로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하는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요약·가공해 개인별·채널별 거래·접촉 현황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신한은행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은행 정보를 체계화하는 잡업이 완려되면 개인별 거래·소비·상품가입과 채널활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채널접점의 통합 고객접촉 이력을 알 수 있어 맞춤형 마케팅도 실행할 수 있고 상담이력 탐색을 통해 서비스 개선, 고객이동경로 분석 등 고급분석 기반도 갖추게 된다. 고객의 스토리를 데이터를 이용해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은행 채널은 다양하다. 영업점, 콜센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ATM 등에서 대면·비대면 접족이 이뤄지고 신규와 거래도 이뤄진다. 이들 채널에서 고객 이력 정보가 쌓이게 된다. 신한은행은 이뿐만 아니라 S알리미(문자 알림 서비스), 이메일, SMS·LMS, DM 발송·반송 정보까지 모을 예정이다.  
    이를 연락처, 연령, 직업, 지여 등 고개 기본정보부터 거래 이력, 거래 종류, 채널 이용 현황, 상담문의, 상품문의 이력 등으로 구분해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동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고급 분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를 활용하는 것은 일선 부서의 몫이다. 지역별로, 채널 활용별로, 시간대별 거래 비중 등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이기 대문에 업무에 익숙한 업무 부서가 질문을 던지면 이에 대한 답을 과거와 비교해 쉽게 얻을 수 있다.  
    사용할 정보는 웹이나 앱에 남아있는 이력 정보 등이다. 이들 정보에 질문을 던져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 개인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빅데이터 체계를 마들 예정이다. STT(Speech To Text)를 이용해 음성 정보를 문자로 변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는 은행 관점의 멀티채널이 아닌 고객 관점의 옴니채널을 지향하고 있다.** 멀티채널이 은행 업무 중심의 분석이라면 옴니채널은 고객 관점의 정보다. 고객의 행동, 거래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행동 패턴은 통상 인지, 탐색, 신규, 거래 등으로 구분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의미를 분석해 각 행동거래 별로 이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12. 신한은행이 기업대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심사·승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동안 은행원이 직접 진행했던 신용평가, 한도 설정 등의 전반적인 대출 실행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업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영업점에서 은행원이 제출 서류를 분석, 신용평가를 하고 내부 대출시스템을 활용해 한도 등을 산정했다.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 업종 동향 등을 고려해 종합 평가 이후 대출을 실행해주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이 도입하려는 시스템은 AI플랫폼을 이용해 심사역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부실진단 모형 등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대출심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3. 신한은행이 신한S뱅크와 써니뱅크 등 기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합한 ‘슈퍼앱’(가칭)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안에 슈퍼앱 개발을 완료하고 2~3개월의 베타 서비스를 거쳐 내년 2월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전체 IT 인력의 60% 이상을 슈퍼앱 개발에 투입, 개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슈퍼앱에는 인공지능(AI) 음성뱅킹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아마존과 제휴를 맺고 미국 음성인식 스피커 시장의 7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의 AI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